

항만연관산업 동향 [4월 제2호]

(부산항 연관산업 육성·지원 사무국, 4.27.)

◆ 업계 요청 동향 자료

- 1) (선용품공급업) 코로나19에 따른 해상물동량 변화 및 전망
- 2) (선박수리업, 선박금융업) 부산항 물동량·선박입출항 통계
- 3) (전 업종) 항만연관산업 관련 정부 정책 동향

1. 코로나19에 따른 해상물동량 변화 및 전망

□ 국제화물 운송 감소로 인해 선박 임시결항 비중 증가¹⁾

- 4월 6~10일 컨테이너선 임시결항 212건(3.30.~4.3.의 경우 45건 감소)
 - 아시아~유럽* 항로 29~34% 감소(컨테이너 수송량이 가장 많이 감소한 항로)
 - * 아시아~유럽, 아시아~미국 항로는 아시아에서 완성된 완제품을 운송하는 항로로 글로벌 수요 감소를 의미함
 - 주요 선사들은 임시결항 또는 운항축소를 통해 영업비용 줄이고 선박 공급량을 줄여 해운 운임 하락을 막으려고 함

□ 선박 결항 비중 증가로 해운운임 및 국내 선사 매출액 감소 불가피

- 미국발 태평양 횡단 선박 결항 비중 변화²⁾

일자	4.6.~13일	4.13.~19일	4.20.~26일	4.27.~5.3일	5.3.~5.9일
결항선박 비중	13%	20%	28%	21%	26%

- 해운운임 감소 :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³⁾ ('20.1월) 980p → ('20.4.24.) 818p
- 국내 144개 선사 3월 평균매출 전년 동월 대비 평균 27% 감소⁴⁾

□ 향후 해상물동량 변화 전망⁵⁾

- 국제통화기금(IMF), 2020년 무역 성장률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전망

1) 출처 : Main container lines face \$23bn loss in 2020 under 'worst case' scenario(Seatrade Maritime News, '20.4.7., 해운업계 컨설팅업체 Sea-Intelligence의 분석 내용 인용)

2) 출처 : US import plunge inevitable as canceled sailings mount(American Shipper, '20.4.20.)

3) 설명 : 상하이 운송시장 15개 항로의 스팟 운임을 반영한 지수 / 출처 : 상하이항운교역소

4) 출처 : 국내 해운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 내용(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4.2.)

5) 출처 : 코로나19 확산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해상물동량 변화 전망(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4.24.)

- 전 세계 무역 규모 11.0% 감소, 특히 개도국에 비해 선진국의 수출입 감소가 클 것으로 전망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20년 컨테이너 물동량 12% 내외 감소 전망

□ 시사점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물동량 감소와 선박 감축운항으로 항만연관산업 일감 급감 및 경영 수익 악화가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우려
- 부산항 연관산업계 장기 불황 완화를 위한 자구 노력 및 정부대책 마련을 위한 협의 필요

2. 부산항 물동량·선박입출항 통계

□ '20년 1~3월 총 물동량 추이

(출처: BPA-NET / 단위: 천TEU)

구분	2019년			2020년(전년대비 증감율)		
	1월	2월	3월	1월	2월	3월*
전체	1,811	1,662	1,887	1,791 (-1%)	1,727 (4%)	1,934 (2%)
수출입화물	857	747	941	784 (-9%)	839 (12%)	908 (-4%)
환적화물	954	914	946	1,007 (6%)	888 (-3%)	1,025 (8%)

* 부산항 터미널 운영사(신항·북항 8개사) 잠정 집계 기준이며, BPA-NET 확정 통계 발표 시 정정될 수 있음

○ 1월 : 수출입화물 감소, 환적화물 증가⁶⁾

- (수출입 감소 원인) 우리나라 설과 중국 춘절 연휴로 양국 제조업체들 공장 가동 일시 멈춘 데 이어 코로나19로 중국 생산차질로 길어짐
- (환적 증가 원인) 중국업체들이 춘절 연휴 앞두고 미리 선적한 화물이 몰림, 코로나19로 중국 항만 운영차질로 부산항에 화물을 내리는 선박 증가. 당시 부산항 각 터미널 컨테이너 적체 현상으로 장치율이 한계선(80%)을 넘나들어 작업효율 감소, 선박 접안 대기 시간도 연장

6) 출처: 신종코로나 여파, 수출입 전진기지 부산항 비상...물동량 급감('20.2.7., 한국경제)

○ 2월 : 수출입화물 증가, 환적화물 감소7)

- (실제 현장 물동량 감소 체감) 수치상 환적만 감소, 수출입이 증가하여 코로나19 피해가 없어 보이나 실제 현장 체감은 다름. 올해 2월은 전년 동월에 비해 작업일수가 4일 길었음(1월에 음력설이 있었고, 올해 2월은 윤달). 부산항에서는 하루 평균 6만 TEU를 처리하므로 올해 2월은 전년 동월보다 24만 TEU 정도 물동량이 많아야 하지만 실제로는 약 6만 TEU 증가에 그침. 이를 반영하면 환적과 수출입 모두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받은 것으로 추정

○ 3월 : 수출입화물 감소, 환적화물 증가8)

- (환적 증가 원인) 중국 항만들이 춘절 연휴 및 코로나19로 정상운영을 하지 못해 부산항에 쌓였던 환적화물이 3월에 빠르게 반출되면서 물동량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 코로나19로 세계 주요 항만의 물동량이 감소한 가운데, 다음 달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

□ 선박 입출항 전년대비 국가별 추이

(출처: BPA-NET)

구분	2019				2020				전년대비증감율(%)			
	3월		누계(1~3월)		3월		누계(1~3월)		3월		누계(1~3월)	
국가	척수 (척)	톤수 (천톤)	척수 (척)	톤수 (천톤)	척수 (척)	톤수 (천톤)	척수 (척)	톤수 (천톤)	척수 (증감)	톤수 (증감)	척수 (증감)	톤수 (증감)
합계	4,735	112,944	13,652	325,649	4,117	114,561	12,414	327,388	-13.05	1.43	-9.07	0.53
일본	1,536	12,673	4,377	36,092	1,244	13,228	3,828	37,500	-19.01	4.38	-12.54	3.90
한국	999	13,631	2,838	40,908	790	13,304	2,414	37,471	-20.92	-2.40	-14.94	-8.40
중국	919	36,826	2,613	104,143	864	40,536	2,462	109,456	-5.98	10.08	-5.78	5.10
러시아	364	3,480	1,081	9,319	295	3,249	884	8,962	-18.96	-6.63	-18.22	-3.83
미국	144	9,693	440	29,313	151	9,117	441	27,277	4.86	-5.94	0.23	-6.95
대만	132	5,257	408	14,696	95	4,019	315	12,600	-28.03	-23.54	-22.79	-14.27
홍콩	83	3,272	258	8,859	52	2,514	167	6,854	-37.35	-23.17	-35.27	-22.64
그 외	558	28,113	1,637	82,318	626	28,592	1,903	87,269	12.00	1.71	16.25	6.01

- 전체적으로 부산항에 입항하는 선박 수가 감소하고 있어 도선, 예선, 줄잡이, 선용품공급 등 각종 항만연관산업이 연쇄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것9)

7) 출처: 코로나19로 부산항 2월 환적화물 2.2% 감소, 수출입은 증가('20.3.5. 매일경제)
 8) 출처: 중국항만 정상화 영향...부산항 3월 환적 두 자릿수 증가('20.4.6. 매일경제)
 9) 출처: 항만물류 코로나 충격 가시화, 해운동맹 선박 줄줄이 결항('20.4.9. 연합뉴스)

3. 항만연관산업 관련 정부 정책 동향

□ 해양수산부 선박관리산업육성 시행계획 발표('20.3. 붙임1 참고)

- (주요내용) 선박관리산업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육성·지원정책 수립
 - '28년까지 선박관리 3,000척 및 국적선원 관리 11,000명 달성을 목표로 세운 4대 추진전략은 다음과 같음
 - ① 선박관리 전문 인력 양성, ② 선박관리산업 역량 강화, ③ 선박관리산업 신규 시장개척 ④ 선박관리산업 제도적 지원
 - 추진전략 ②의 세부과제에서는 항만연관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아래와 같이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 지원할 계획

- ◆ (연관 산업과의 협력체제 구축) 선박수리업체, 선용품 공급업체 등 연관산업과의 상생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상호 협력체제 구축
 - (협력위원회 구성·운영) 협회와 연관 산업단체(선용품, 유류공급, 선박수리 등)가 참여하는 협력위원회 운영을 통해 동반성장 협력과제*를 도출(6~8월)
 - * 선박관리업체는 관리선박의 선박수리, 선용품 공급 등 연관산업 성장을 위한 과제를, 연관 산업단체는 서비스 품질향상 등을 과제를 협력과제로 선정
 - (업무협약 체결) 협력위원회 운영을 통해 도출된 협력과제 이행을 위한 동반성장 업무협약 체결 및 세부추진계획 수립(9~12월)

□ '선박의 입출항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20.4.21.)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개정안 주요내용
 - 선박이 피난, 수리 등을 위해 출항 후 12시간 이내에 무역항으로 귀항하거나 해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긴급 입출항할 경우 Port-Mis로 신고가능
 - '선박입출항 시행령'의 일부 과태료 항목의 부과 금액을 상향 조정
 - * (예시) 불꽃이나 열이 발생하는 용접방식 선박수리를 진행하면서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기존 30만원 → 100만원으로 인상
 - ** 위험물(선박 유류 포함)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기존 100만원 → 150만원으로 인상

2020 선박관리산업육성 시행계획

2020. 2



해양수산부

I. 현 상황 진단

- 세계 해운업은 비용절감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선박에 대한 소유와 관리를 분리하여 경영하는 형태로 발전

* 선박관리산업은 선원관리, 선용품 공급, 선박수리, 금융, 보험 등의 서비스 제공으로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해운서비스 산업

- 세계 총 선박량은 '18년 기준 약 18억7천3백만DWT으로 '08년 약 11억2천7백만DWT 대비 연평균 약 6.6%의 성장세

* '18년 기준 세계 상선대 94,169척 중 주요 선적국의(상위 35개국 기준) 상선대 규모가 70,999척(75.4%)을 차지

- 세계 선박관리산업은 전문화 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형 선박 관리기업(관리선박 240~940 , 관리 선원 수 8,000~44,000명) 선도

* '18년 기준 세계 선박관리시장 규모는 총 상선대의 20~25% 수준인 18,800~23,500척이며 나머지 70,600~75,300척(75~80%)은 선주가 직접 관리

- 해외 주요 선박관리기업들은 기술적 서비스(선원관리, 선박운항, 선박수리 등) 외에 상업적 서비스(경영자문, 회계관리·보험 등)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 다양하고 전문화된 종합적인 선박관리서비스 제공
 - 현재 25% 수준의 선박관리비율은 선주들의 선박운항 효율성 증대를 위한 선박관리서비스 수요 증가로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

- 이에 반해, 국내 선박관리기업은 대부분 단순 선원관리 위주의 영세한 업체로 산업 경쟁력이 매우 부족한 실정

* 선박관리업 도입('84) 이후 등록업체는 '13년 338개 대비 '18년 403개로 연평균 3.6% 증가, 이 중 300개 업체(74.4%)는 5척 미만 선박 관리로, 평균 직원 수 2~3명 수준

- 소규모 선박관리 등록업체의 난립, 산업 육성정책과 제도에 대한 참여의지 부족 등으로 산업의 육성·지원에 근본적 한계가 노출

II. 기본계획 주요내용 및 시행계획 수립방향

1. 기본계획 주요내용

- (수립배경) 선박관리산업 육성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10년 단위의 계획을 5년 주기로 「제2차 선박관리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19.12.30)
 - (수립목적) 선박관리업의 규모화를 실현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인 육성·지원으로 선박관리산업의 글로벌 성장기반 마련
 - 이에 따라,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4대 추진전략, 9개 추진과제, 21개 세부 추진과제를 설정
- (비전) 선박관리산업 육성·지원으로 글로벌 성장기반 마련
 - (목표) '28년까지 선박관리 3,000척/ 국적 선원관리 11,000명

추진전략	추진과제	세부 추진과제
① 선박관리 전문인력 양성	1. 선박관리전문가 양성 교육훈련 강화	가. 선박관리전문가 양성 교육인원 단계별 확대 나. 선박관리전문가 양성 교육훈련 내실화
	2. 선박관리전문가 역량 제고	가. 선박관리 경영자 교육 나. 국제전문가 양성 해외 파견 및 온라인 교육
	3. 선원인력 양성 및 공급 시스템 구축	가. 청년해기인력 공급 기반 강화 나. 국적 부원선원 양성 다. 해기사 글로벌 역량 강화 라. 양질의 외국인 선원인력 공급 기반 구축
② 선박관리 산업 역량 강화	1. 선박관리사업자 경영능력 제고	가.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제도 운영
	2. 선박관리정보시스템 구축	가. 선박관리정보시스템 도입 지원
	3.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기능 강화	가. 동반성장 상생협력 체제 구축 나.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사업 및 조직 확대
③ 선박관리 산업 신규 시장 개척	1. 해외시장 신규 개척	가.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및 마케팅 강화 나. 해외 현지 사무소 설립
	2. 신규 비즈니스 모델 개발	가. 조선 및 해양플랜트산업과의 연계 나. 여객선 및 크루즈산업과의 연계
④ 선박관리 산업 제도적 지원	1. 선박관리산업 지원 제도 확대	가. 선박관리업 등록제도 개선 나. 선박관리전문가 국가자격증 제도 도입 다. 선박관리업 세제 지원 지속 유지 및 확대 라. 관리선박의 무역항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마. 관리선박의 선박검사료 및 보험료 할인

2. 시행계획 수립방향

- (수립방향) 기본계획의 체계적 이행을 위해 연차별 시행계획마다 중점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매년 이행결과를 분석하여 환류·반영
 - '20년에는 사업 규모화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수선박관리사업자 인증, 선박관리업 등록제 개선 등 성장기반 여건조성을 중점 추진
 - 선택과 집중의 전략적 육성·지원을 위한 성장기반 여건조성을 위해 4대 추진전략, 6개 추진과제, 11개 세부 추진과제를 설정

< 연차별 시행계획 중점 추진방향 >



- (중점 추진과제) ① 전문인력 교육훈련 강화, ② 선원인력 공급 시스템 구축, ③ 우수선박관리사업자 인증제도 운영, ④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⑤ 선박관리업 등록제도 개선
 - ① (전문인력 교육훈련 강화) 선박관리인력의 업무역량 향상을 위해 전문 지식과 능력을 갖춘 선박관리전문가 양성 교육훈련의 지속 추진
 - (교육훈련과정) 법정 교육훈련(양성과정 6개, 심화과정 5개)별 교육 수요 조사 결과를 기초로 단계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시행
 - * 수요자(기업)·유관기관·관련단체 간 협업시스템을 구축하여 수요조사, 세부 교육훈련계획 수립, 훈련대상자 선발, 교육시행 등 단계별로 체계적 추진
 - (교육훈련방법) 교육프로그램 다양화·교육주기 확대 등 수요자 중심 교육프로그램으로 전환*하여 추진
 - * (단기) 교육프로그램 구분(재직자/ 비재직자반) 운영 등 교육품질 향상 (장기) 온라인 교육·교육시간(야간, 주말) 조정 등을 통해 교육 참여율을 제고
 - ** ('20년 예산) 200백만원/ (시행주체)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목표인원) 연간 150명

② (선원인력 공급시스템 구축) 선박관리사업자의 원활한 선원인력 공급과 자질 향상을 위한 선원관리 역량 강화 지원사업 추진

- (청년해기인력 공급기반 강화) 미취업 청년해기사 대상,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를 위한 맞춤형 특화교육과 취업 연계지원 사업 추진

* ('20년 예산) 400백만원/ (시행주체)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목표인원) 연간 150명

- (국적 부원선원 양성) 외국인선원 도입 등으로 줄어드는 국적부원 선원의 수급 안정을 위해 선사 수요 기반의 양성·공급사업 추진

* 외국인선원 고용현황 : ('14) 20,894명 → ('17) 22,798명 → ('18) 23,816명

** 선사 수요기반으로 LNG선, 탱커선 등 선종별 법정교육 이수 및 취업 연계 지원

*** ('20년 예산) 500백만원/ (시행주체)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목표인원) 연간 150명

- (글로벌 해기사 역량 강화) 청년 해기사를 대상, 국내·외 교육기관 간 공동 교육훈련을 통한 역량 강화로 유럽 등 해외취업 활성화

* 국적 해기사 취업률 : ('15) 92.7% → ('16) 91.1% → ('17) 88.1%

** ('20년 예산) 200백만원/ (시행주체)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목표인원) 연간 40명

③ (우수선박관리사업자 인증제 운영) 성장 잠재력이 있는 우수선박관리사업자를 인증, 선택·집중의 전략적인 지원으로 경쟁력을 강화

- * 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민관합동 협의체를 구성, 선박관리산업 인증센터 지정과 우수선박관리사업자 인증 세부방안 등을 포함한 인증제도 운영계획 수립(~12월)

- (인증센터 지정) 선박관리산업 인증센터 지정절차, 업무범위 및 지원 방안을 마련, 사업 설명회와 공모·심사를 통해 인증센터 지정(1개소, 10월)

- (우수선박관리사업자 인증계획 수립) 인증신청 공모와 인증절차, 인증선박관리사업자 지원 사업 등을 포함한 인증계획 수립(11월)

* 인증센터 운영과 우수선박관리사업자 육성·지원을 위한 소요예산 작성 및 재정당국과의 사전 협의도 적극 추진(12월~)

④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국제기구 개최 국제세미나, 컨퍼런스 참여와 국내 포럼 개최 등 국제교류 활성화를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 * 국제동향, 시장 정보, 선진 운영기법 등을 조사·공유하여 국내 선박관리기업의 외국적 선박관리 수주확대 등 해외시장 진출 경영전략 수립 등을 적극 지원

- (선박관리포럼 개최) 주요 해운국가의 선주 등을 초청, 선박관리 기업의 업무역량과 해기인력의 우수성 홍보를 위한 국내 포럼 개최(10월)
 - * (업무협약 체결) 해외 선박 수주 확대 지원사업 추진 협업체계 구축('19.1,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부산광역시·부산항만공사)
- (국제교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인적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국제 세미나, 컨퍼런스 참여 등 국제교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
 - * (추진일정) Sea Japan('20.3월), LISW20('20.9월), Crew Connect Global('20.11월) 참여를 통한 시장조사 등 해운동향 파악과 주요 선주대상 마케팅 활동 전개

⑤ (선박관리업 등록제도 개선 등) 등록기준 강화로 사업 규모화 유도와 세제지원 유지·확대, 인센티브 마련 등 제도적 지원 강화

- (선박관리업 등록제도 개선) 영세한 등록업체 과잉에 따른 육성·지원의 근본적인 한계 해소를 위한 등록제도 개선방안 마련(10월)
 - * (현행 등록기준) 「상법」 상 회사로 1년 이상의 선박관리계약을 체결할 것
 - (등록기준 강화) 자본금, 관리인력 조건 등을 추가하는 선박관리업 등록기준 강화로 자율적 구조조정 등 사업의 규모화 유도
- (세제지원 유지와 확대) 선박관리업의 소득세·법인세 감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세제지원 지속 유지와 확대 필요
 - (세제지원 유지) 조세특례제한법·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제혜택 유지 필요성(정책효과 등)을 일몰 재검토 또는 개정 추진에 적극 대응(5월~)
 - (세제지원 확대) 국외근로 선원의 근로소득세 세제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선원인력 수급의 안정화를 도모
 - *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원양어업선박과 국외 등 항행선박에서 근로제공 선원의 근로소득세 비과세 급여범위 확대 예시 (현행) 월 300만원 이내 → (개정) 월 400만원 이내
 - ** 싱가포르, 홍콩, 영국 등 주요 해운국의 선원 근로소득세 비과세 정책사례 등 확대 필요성에 따른 개정안 마련 및 관계부처에 개정수요 의견 제출(~12월)
- (인센티브 신설) 국내 선박관리회사가 관리하는 외국적 선박에 대한 무역항 항만시설사용료 감면제도* 신설(~12월)
 - * 선박입출항료, 접안료, 정박료의 감면비율, 감면기간 등 정책적 지원 필요성을 기초로 무역항사용료규정 [별표 2] 항만시설사용료별 감면율 및 감면대상으로 신설

Ⅲ. 2020년 시행계획 목표체계도

목표	선박관리산업 육성·지원체계 여건 조성
-----------	-----------------------------

주요 지표	<input type="checkbox"/> 선박관리전문인력 양성 교육인원 확대 <input type="checkbox"/> 선원인력 양성 공급 기반 구축 <input type="checkbox"/> 인증센터 지정, 우수선박관리사업자 인증계획 수립 <input type="checkbox"/> 선박관리업 등록제도 개선방안 마련 <input type="checkbox"/> 선박관리산업 제도적 지원 확대
--------------	--

추진전략	추진과제	세부 추진과제
1. 선박관리 전문 인력 양성	가. 선박관리전문가 양성 교육훈련 강화 나. 선원인력 양성 및 공급 시스템 구축	① 선박관리전문가 양성 교육인원 단계별 확대 ① 청년해기인력 공급기반 강화 ② 국적 부원선원 양성 ③ 해기사 글로벌 역량 강화
2. 선박관리산업 역량 강화	가. 선박관리 사업자 경영능력 제고 나. 한국선박관리산업 협회 기능 강화	①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제도 운영 ① 동반성장 상생 협력체계 구축 ②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사업 및 조직 확대
3. 선박관리산업 신규 시장개척	가. 해외시장 신규 개척	①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및 마케팅 강화
4. 선박관리산업 제도적 지원	가. 선박관리산업 지원 제도 확대	① 선박관리업 등록제도 개선 ② 선박관리업 세제지원 지속 유지 및 확대 ③ 관리선박의 무역항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IV. 세부 추진과제 추진계획

1. 선박관리 전문인력 양성

가 선박관리전문가 양성 교육훈련 강화

① 선박관리전문가 양성 교육인원 단계별 확대

□ 추진배경

- 선박관리에 관한 업무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춘 선박관리전문가 양성 교육훈련 지속 추진 필요
 - 선박관리전문가 양성 교육훈련인원의 단계적 확대와 교육훈련 방법의 다양화와 교육품질 제고로 전문인력 수요 증가에 대응

□ 추진방안

- **(교육훈련과정)** 선박관리산업발전법에 따른 법정 교육훈련(양성과정 6개, 심화과정 5개)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 교육훈련계획을 수립·시행
 - * 수요자(기업)·유관기관·관련단체 간 협업시스템을 구축하여 수요조사, 세부 교육훈련계획 수립, 훈련대상자 선발, 교육시행 등 단계별로 체계적 추진
- **(교육훈련방법)** 교육프로그램 다양화·교육주기 확대(재직자반, 비재직자반)로 훈련과목별 전문 강사진을 구성하여 집체교육 실시
 - 홍보 강화로 교육 참여율을 제고하고, 장기적으로 온라인 교육, 교육시간(야간, 주말) 조정 등 수요자 중심의 교육방법으로 전환
 - * ('20년 예산) 200백만원/ (시행주체)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목표인원) 연간 150명

< 연도별 교육훈련계획 >

구 분 \ 년 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합계
양성교육 양성인원(명)	35	75	100	120	160	170	180	190	190	200	1,420
심화교육 양성인원(명)	40	75	100	110	110	120	130	130	130	135	1,080
양성 총 인원(명)	75	150	200	230	270	290	310	320	320	335	2,500

나

선원인력 양성 및 공급 시스템 구축

1 청년해기인력 공급기반 강화

□ 추진배경

- 선박관리사업자가 관리하는 선원인력의 원활한 공급과 자질 향상을 위한 체제 구축 필요
 - 국적 외항상선에 승선하는 국적 해기사 점유율은 외국인 해기사와 임금격차, 선원직 기피 등의 사유로 인해 지속적으로 감소
 - * 국적 외항상선의 국적해기사 점유율 : '08년(91.22%) → '12년(81.9%) → '17년(72.3%)

□ 추진방안

- (사업목적) 미취업 청년해기사를 대상으로 산학협력 수요자 맞춤형 특화교육*과 취업 연계 지원으로 선원의 안정적 공급시스템 구축
 - LNG선, 탱커선, 화물선 등 선종별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고, 교육 수료 이후 해당 선박(선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연계
 - *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를 통한 고용수요 창출을 위해 항해·기관 부문으로 구분하여 공통직무와 현장실무 특화교육과정으로 편성·운영
- (사업내용) 수요자(기업)·해양대학·유관기관 및 관련단체 협업*으로 맞춤형 특화교육을 통한 직무능력 차별화로 국적 해기사 취업 지원
 - 산학협력 시스템에 따라 업무협약(채용약정), 교육생 선발, 교육 시행, 취업 연계지원 등 사업추진 단계별로 추진
 - *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사업계획 수립·시행/ (지정교육기관) 전문 강사진 지원/ (선박관리회사) 취업 연계 지원/ (학교) 교육대상자 선발 지원, 교육장소 제공 등
 - ** ('20년 예산) 400백만원/ (시행주체)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목표인원) 연간 150명

< 연도별 청년해기인력 공급 추진계획 >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합 계
공급 계획인원(명)	150	150	150	150	150	200	200	200	200	200	1,750

2 국적 부원선원 양성

□ 추진배경

- 해양수산업의 안정적 경영과 국내 일자리 창출 및 유사시 대응을 위해 국적 부원선원의 일정 규모 유지 필요

- 국적 외항상선에 승선하는 국적 해기사 점유율은 외국인 해기사와 임금격차, 선원직 기피 등의 사유로 인해 지속적으로 감소

* 노령화 정도(50세이상 부원선원) : ('14) 54.7% → ('17) 75.3% → ('18) 75.8%

** 외국인선원 고용현황 : ('14) 20,894명 → ('17) 22,798명 → ('18) 23,816명

□ 추진방안

- (사업목적) 외국인선원 도입 및 3D 업종으로 점차 줄어드는 국적 부원선원 일자리 창출 등 안정적인 공급시스템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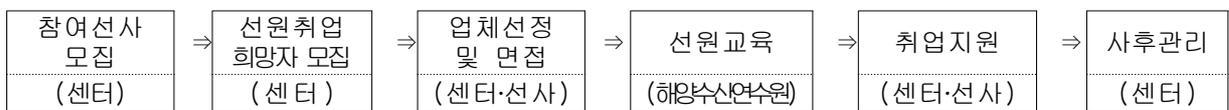
- LNG선, 탱커선, 화물선 등 선종별 법정 필수교육*을 지원하고, 교육 수료 이후 해당 선박(선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연계

* 교육기간 : 최소 2주~6주

* 교육과정 : 기초안전교육(5일) 탱커 기초교육(3일) 선박 보안교육(1일) 등

* 지원사항 : 교육비(10만원~50만원 이내), 선원수첩 발급비 및 건강진단비(최대 16만원), 취업준비금(최대 3개월, 월 50만원), 장기승선 장려금(2회, 3개월 승선시 1백만원/ 6개월 승선시 1백만원)

- (사업내용) 업종·선종별 신규 국적부원의 선사 채용수요를 기반으로 희망자를 모집, 법정 필수교육 이수와 취업 연계 지원



*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사업계획 수립·시행/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법정 필수 교육 시행/ (참여선사) 취업 연계 지원/

** ('20년 예산) 500백만원/ (시행주체)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목표인원) 연간 150명

< 연도별 국적부원선원 양성 공급계획 >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합 계
공급 계획인원(명)	150	150	150	150	150	150	200	200	200	200	1,700

3 글로벌 해기사 역량 강화

□ 추진배경

- 해외의 좋은 일자리를 원하는 청년 해기사들 대상으로 관련 취업 정보제공, 맞춤형 역량 강화 교육 실시 등 취업연계 지원 필요
 - 매년 해양대, 해사고, 오션폴리텍에서 해기사 인력을 양성 중이나, 한진해운 사태 등으로 국적 해기사의 취업률은 감소 추세
 - * 국적 해기사 취업률 : ('15) 92.7% → ('16) 91.1% → ('17) 88.1%

□ 추진방안

- (사업목적) 국내·외 교육기관 간 공동 교육훈련으로 해기사 역량을 강화하여 유럽 등 주요 선사에 해외진출 취업 지원
 - 청년 해기사 대상 글로벌 역량 교육(리더십, 해사영어) 및 해외선사 승선수습 연계로 국적 해기사의 해외취업 지원(해기협정 체결국가 40개국)
- (사업내용) 청년 해기사를 대상으로 글로벌 역량 강화 사업(40명)을 신규 사업으로 본격 추진*하여 유럽 등 해외취업 활성화
 - * '18년 시범사업(예산 노사분담) : 4명 교육 후 2명 취업
'19년 시범사업(예산 노사분담) : 13명을 선발하여 해외연수 진행 중('19.9~'20.2)
 - (교육지원) 국내*(해양수산연수원, 1개월) 및 해외 실습교육**를 지원하여 청년 해기사들의 맞춤형 해기 역량강화 도모
 - * 해사영어, 선상 리더십 교육, 선사 맞춤형 직무교육 등 실시
 - ** 핀란드 '아보아마레' 혹은 '노르웨이교육훈련센터'에서 맞춤형 직무교육(2개월)
 - (승선실습 및 취업) 핀란드 등 유럽 선사의 승선수습*(3개월)을 실시하고, 수습 완료 후 선사면접 등을 통해 취업 연계
 - * 핀란드의 '아보아마레'와 MOU를 체결하여 유럽 선사로 승선수습 지원
 - ** ('20년 예산) 200백만원/ (시행주체)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목표인원) 연간 40명

< 연도별 국적 해기사의 해외취업 추진계획 >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합 계
취업 계획인원(명)	20	40	40	40	40	40	40	40	40	40	380

☞ 사업추진 : 정부, 선원노련, 학계, 선주단체 등 관련기관 공동 협력사업으로 추진

2. 선박관리산업 역량 강화

가 선박관리사업자 경영능력 제고

①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제도 운영

□ 추진배경

- 해외 선사로부터 관리선박 유치 확대 등 국제경쟁력을 갖춘 선박관리사업자 육성을 위해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제도 운영 필요
 -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제도가 마련(선박관리산업발전법 제8~12조)되어 있으나, 인증수요 저조 등의 사유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상황
 - 우수 선박관리사업자에 대하여는 다른 선박관리사업자에 우선한 정부 지원사업* 추진을 통해 글로벌 선박관리사업자로 육성

* 컨설팅 지원, 해외시장 개척 및 해외영업 네트워크 구축 지원, 선원의 근로조건 및 고용환경 개선 지원, 기술적·상업적 선박관리 역량 제고 지원 등

□ 추진방안

- (주요내용) 성장 잠재력이 있는 사업자를 선정, 전략적 지원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갖춘 국제적 선박관리기업으로 집중 육성 추진
- (사업내용) 선택과 집중을 통한 기업의 규모화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제도 운영계획 수립

- (협의체 구성) 효율적 인증제도 운영방안 마련을 위해 협의체(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인증센터지정대상기관*, 선박관리사)를 구성·운영(4~9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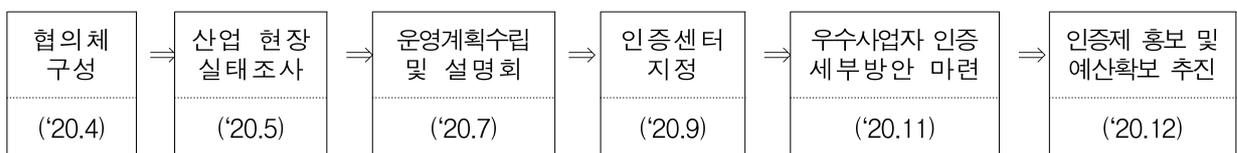
* 인증심사 전문인력(5명 이상)을 확보한 정부출연연구기관, 공공기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선급법인, 해양교통안전공단 중 적정성 검토를 거쳐 인증센터 지정

- (현장 실태조사) 인증제도 운영계획 수립의 기초자료 조사를 위해 선박관리업체의 사업범위와 실적 등에 관한 현장 실태조사* 실시(5월)

* 합동(소속 지방청과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현장 실태조사반을 편성하여 실시

- (운영계획 수립) 인증센터 지정절차, 업무범위* 및 지원방안,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 및 지원방안 등 인증제도 운영계획 수립(7월)
 - * 인증신청 접수·심사, 인증기준 유지 점검대행, 인증기준에 대한 개발·연구, 인증 제도에 대한 홍보 및 조사, 인증업무의 사후 관리 체계 및 방법의 연구 등
- (사업 설명회) 인증센터 지정대상기관과 선박관리사업자를 대상으로 인증제도 운영계획 설명회 개최로 참여 활성화를 유도(7월)
 - * 인증센터의 업무범위와 지원방안 점검대행, 인증기준에 대한 개발·연구, 인증 제도에 대한 홍보 및 조사, 인증업무의 사후 관리 체계 및 방법의 연구 등
- (인증센터 지정) 인증센터 지정 신청 공모와 심사를 통해 인증심사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선박관리산업 인증센터 지정(9월)
 - * 인증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선박관리산업 인증센터(1개소)를 지정하여 전문적인 인증심사 체제 구축
- (우수선박관리사업자 인증 세부방안 마련) 인증제도 운영계획에 따라 '21년도 우수선박관리사업자 인증·지원을 위한 세부방안* 마련(11월)
 - * 우수선박관리사업자 인증 신청 공모와 인증절차, 인증 후 인증선박관리사업자 육성을 위한 정부의 지원 사업계획안 등을 포함
- (인증제도 홍보) 선박관리등록업체를 대상으로 우수선박관리사업자 인증·지원 세부방안에 대한 사전 홍보 설명회를 개최(12월)
- (예산확보 추진) 인증센터와 우수선박관리사업자 육성·지원을 위한 예산요구안 작성 및 사전 재정당국 협의 등을 적극 추진(12월~)

○ (추진일정)



< 인증센터 지정 및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제도 운영계획 >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합 계
인증센터 지정	1									1
우수사업자 인증	-	1	1	1	1	2	2	2	2	12

나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기능 강화

1 동반성장 상생 협력체제 구축

□ 추진배경

- 선박관리산업은 선박의 건조, 운항, 수리 및 해체 등 해운산업의 분업화·전문화를 통한 성장을 위한 서비스 산업으로 선사 등 연관 산업과 동반성장을 위한 협력체제 구축 필요
 - 각종 환경규제, 선박 안전운항 등 해사안전 분야의 국제협약 등 해운 정책에 대한 선사 등 연관 산업체와의 공동 대응의 필요성 확대

□ 추진방안

- (선사와의 협력체제 구축) 선박의 안전운항 확보와 국적선 선박관리 확대를 위해 한국해운연합, 한국선주협회와의 상생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상호 협력체제 구축
 - (상생위원회 구성·운영) 협회와 한국선주협회 등 선사가 참여하는 상생위원회 운영을 통해 동반성장 협력과제*를 도출(6~8월)
 - * 선박관리업체는 선박의 안전운항 확보를 위한 과제를, 선사단체는 국적선 선박관리 위탁확대를 위한 과제를 구체적인 협력과제로 선정
 - (업무협약 체결) 상생위원회 운영을 통해 도출된 협력과제 이행을 위한 동반성장 업무협약 체결 및 세부추진계획 수립(9~12월)

- (연관 산업과의 협력체제 구축) 선박수리업체, 선용품 공급업체 등 연관산업과의 상생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상호 협력체제 구축
 - (협력위원회 구성·운영) 협회와 연관 산업단체(선용품, 유류공급, 선박수리 등)가 참여하는 협력위원회 운영을 통해 동반성장 협력과제*를 도출(6~8월)
 - * 선박관리업체는 관리선박의 선박수리, 선용품 공급 등 연관산업 성장을 위한 과제를, 연관 산업단체는 서비스 품질향상 등을 과제를 협력과제로 선정
 - (업무협약 체결) 협력위원회 운영을 통해 도출된 협력과제 이행을 위한 동반성장 업무협약 체결 및 세부추진계획 수립(9~12월)

2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사업 및 조직 확대

□ 추진배경

- 협회의 인력 및 예산 규모는 영세*한 실정으로 선박관리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사업과 조직 확대 등 역할* 강화가 필요

* 인력·예산 : 구성인력은 9명(상임임원 2명 포함), 예산규모 16억원(국고지원 5, 지자체 지원 1, 자체수입 10) 수준으로 적정 기능 수행을 위한 규모의 확대가 필요

** 역할 : 통계작성, 수집·조사·연구, 교육훈련, 경영상담·지도, 해외시장 개척사업 등 선박관리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이익 도모를 위한 업무 수행

□ 추진방안

- (사업 확대)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한 '산업 발전전략 수립 연구용역' 추진으로 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신규 사업 추진방안 마련(~10월)
 - (신규사업 발굴) 선박관리 역량 강화, 선박관리전문가 자격증제 도입, 해외수주와 금융 지원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신규 사업 추진방안 마련
 - (연차별 사업계획 수립) 신규 사업 추진방안에 대한 이사회 심의·의결 및 총회 보고를 거쳐 협회의 연차별 사업계획 확정(~12월)
 - (소요예산 확보 추진) 연차별 사업계획의 재원조달계획에 따라 자체 예산 확보 및 정부지원 예산요구안 작성 등 예산확보 추진(12월~)
- (조직 확대) 자체 조직 진단을 실시하여 협회의 역할 강화를 통한 적정 기능 수행에 필요한 단계적 조직 확대 방안을 마련(~10월)
 - (확대방안 마련) 조직진단 결과를 기초로 신규 사업 추진방안 이행을 위한 중장기 조직 확대방안 마련(~12월)
 - (중장기 조직 확대계획 수립) 협회의 사무국 확대, 위원회 개편 등 지회 및 부설기관 설립 등 조직 확대방안에 대한 이사회 심의·의결 및 총회 보고를 거쳐 중장기 조직 확대계획을 확정(~12월)
 - (소요예산 확보 추진) 중장기 조직 확대계획에 따른 소요 재원조달 계획에 따라 정관 개정 추진, 협동조합 설립 등 자체예산 확보와 정부 지원사업 규모와 신규 예산사업 확대를 통한 예산확보 추진(12월~)

3. 선박관리산업 신규 시장 개척

가 해외시장 신규 개척

①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및 마케팅 강화

□ 추진배경

- 주요 선주국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국제 세미나, 컨퍼런스 참여와 국내 포럼 개최 등 국제교류 활성화로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 필요
 - 그 간('15~'17) 일본·그리스 선주 등을 대상으로 해외 로드쇼를 개최 하였으나, 수요자 맞춤형 정보제공 부족 등으로 성과는 미흡
- * 국제 동향, 시장 정보, 새로운 정책과 제도 및 선진 운영기법 등을 파악·공유 하여 국내 기업의 경영전략 수립 등 지원

□ 추진방안

- (선박관리포럼 개최) 주요 해운국가의 선주 등을 초청, 선박관리 기업의 업무역량과 해기인력 우수성 홍보를 위한 국내 포럼 개최(10월)
 - 국내 포럼을 통해 우리 선박관리업무에 대한 설명회 등 다각화된 홍보와 국내 선박관리기업의 마케팅 활동을 전개
- * (업무협약 체결) 해외 선박 수주 확대 지원사업 추진 협업체계 구축('19.1, 한국 선박관리산업협회·부산광역시·부산항만공사)
- (국제교류 활성화)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국제세미나, 컨퍼런스 참여 등 국제교류 활동*을 지속 추진
 - 최신의 국제적 동향과 이슈에 적극 대응하고, 시장 정보와 선진 운영기법 파악을 통하여 국내기업의 경영전략 수립 등을 지원
- * (추진일정) Sea Japan('20.3월), LISW20('20.9월), Crew Connect Global('20.11월) 참여를 통한 시장조사 등 해운동향 파악과 주요 선주대상 마케팅 활동 전개
- (마케팅 강화) 선박관리산업 해외홍보를 위해 외국어(영·일) 홈페이지 운영(~12월), 정기 웹진(영·일) 발간, 해외 현지사무소 설립 추진(~12월)

4. 선박관리산업 제도적 지원

가 선박관리산업 지원 제도 확대

① 선박관리업 등록제도 개선

□ 추진배경

- 선박관리산업은 영세한 등록업체의 과잉에 따른 산업 육성의 근본적 한계 개선을 위해 등록기준 강화로 사업의 규모화가 필요

* 규모영세 : 등록업체 403개사 중 74.4%에 해당하는 300개사는 5척 미만의 선박을 관리

** 등록업체 : ('04) 300 → ('08) 406 → ('12) 496 → ('18) 403 → ('19) 371개사

*** 현행 등록기준 : 「상법」상 회사로 1년 이상의 선박관리계약을 체결할 것

□ 추진방안

- (주요내용) 일정규모의 자본금 및 관리인력 조건 등을 추가하는 등록기준 강화를 통해 자율적 구조 조정 등 사업의 규모화를 유도
- (사업내용) 산업 육성·지원 정책의 실효적 기반 구축을 위하여 현장 실태조사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등록제도 개선방안 마련

- (현장 실태조사) 기초자료 조사를 위해 선박관리업체의 사업범위와 실적 등에 관한 현장 실태조사* 실시(5~7월)

* 합동(소속 지방청과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현장 실태조사반을 편성하여 실시

- (추진반 구성·운영) 선박관리업 등록기준 강화방안 마련을 위해 전문가, 관련업·단체 등으로 제도개선 추진반* 구성·운영(8~12월)

* (기능) 현행 선박관리업 등록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분석, 현장 실태조사 결과와 이해관계자 및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등록기준 강화방안 도출

- (해외사례 조사) 선박관리산업 등록제도와 운영 및 지원현황에 관해 해외 주요국가의 정책과 제도운영 사례 조사* 실시(9월)
 - * (조사) 전문기관(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자체 연구과제로 수행
- (등록제도 개선방안 마련) 산업의 규모화 등 자율적 구조조정을 통한 산업 역량 제고를 위한 선박관리업 등록제도 개선방안 마련(10월)
 - 강화된 선박관리업 등록기준은 즉시 적용하되, 기존 등록업체는 일정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
 - * (관리감독 강화) 선박관리업 등록기준 미달 시 사업정지, 등록취소 등 등록 관청(지방해양수산청장)의 관리감독 강화 규정 신설도 병행하여 검토
 - * (인적기준 강화) 장기적으로 선박관리전문가 국가자격증제 신설 시, 일정 규모의 국가자격증 보유 선박관리전문가를 인적 등록기준으로 강화
- (의견수렴 실시) 등록제도 개선방안(등록기준 강화)은 관련 업·단체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해 토론회를 개최(11월)
 - * 필요시, 제도개선 추진반과 소속 지방청 합동으로 등록업체가 많은 지역 중심으로 권역별 설명회 개최도 추진
- (등록제 개선방안 확정) 산업의 성장 기반 구축으로 실효적인 육성·지원 정책의 구현을 위한 등록제도 개선방안 확정(12월)
- (법률개정안 입안) 선박관리업 등록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안 및 내부방침 결정(12월)
- (등록제 개선방안 홍보) 선박관리업 등록제도 개선방안에 대하여 정책 브리핑,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사전 홍보 추진(12월)
- (법률 일부개정 추진)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및 사전 규제심사, 입법 예고, 관계기관 협의 등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추진('21년)

○ (추진일정)



② 선박관리산업 세제 지원 지속 유지 및 확대

□ 추진배경

- 선박관리업에 대한 기존 세제혜택 유지를 통한 경영지원과 선원의 근로소득세 비과세 급여범위 확대로 원활한 선원인력 수급 기반 조성
 - 선박관리회사의 규모화 유도를 위한 재정적 경영지원과 선원의 소득증대로 선원 일자리 창출 등 안정적 선원관리 기반을 구축

□ 추진방안

- (기존 세제혜택 유지) 선박관리업의 소득세·법인세 감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세제지원 지속 유지(5월~)
 -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세·법인세 감면*에 대한 주관부처(기재부)의 일몰(‘20년 말) 재 검토에 적극 대응하여 세제혜택 유지 추진
 -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20.12.31.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사업장 발생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15/100~30/100을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 「부가가치세법」상 외화획득 재화 또는 용역 공급사업 영세율 적용* 지속 유지를 위해 주관부처(기재부)의 개정 검토 등에 적극 대응
 -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획득 재화 또는 용역 공급사업자로서 영세율 적용
 - 선박관리업에 대한 세제지원 실적과 정책효과 우수사례 등을 바탕으로 세제지원 계속 운용의 필요성 등 대응자료 사전 준비
- (세제지원 확대) 고립된 근로환경에서 국외근로에 종사하는 선원의 근로소득세 세제지원 범위 확대로 선원인력 수급 안정화를 도모
 - 싱가포르, 홍콩, 영국 등 주요 해운국의 선원 근로소득세 비과세 세제지원 정책 등 필요성 검토결과를 기초로 개정안 마련(~8월)
 - 선원의 소득세 비과세급여 범위 확대를 위해 주관부처(기재부)에 개정의견 제출 등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12월)
 - *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원양어업선박과 국외 등 항행선박에서 근로제공 선원의 근로소득세 비과세 급여범위 확대 예시 (현행) 월 300만원 이내 → (개정) 월 400만원 이내

3 관리선박의 무역항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 추진배경

- 선박관리회사의 외국적 선박관리 유치 확대를 위한 외국 선사를 대상으로 하는 인센티브 제도 마련 필요
 - 이를 통해 국내 해외 선사로부터 선박관리회사로의 선박관리 위탁 증가와 항만 이용 활성화 촉진 등 상호 시너지 효과 창출
 - * 현재, 국내 선박관리회사가 관리하는 외국적 선박의 소유자인 해외 선사에 제공하는 정부차원의 정책적 지원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가 없는 실정

□ 추진방안

- (감면방안 마련) 국내 선박관리회사가 관리하는 외국적 선박에 대한 무역항 항만시설사용료 감면방안 마련(~7월)
 - 국내 선박관리회사가 관리 외국적 선박현황, 무역항 입출항 실적, 항만 시설사용료 징수현황 등 관련자료 기초조사 실시(지방청, 협회 협조)
 - 국내 선박관리회사가 관리 외국적 선박현황, 무역항 입출항 실적, 항만 시설사용료 징수현황 등 관련자료 기초조사 실시(지방청, 협회 협조)
 - 국내 선박관리회사에 선박관리가 위탁된 외국적 관리선박에 대해 항만법시행령*에 따라 선박입출항료, 접안료 및 정박료 감면제도 마련
 - * (항만법시행령 제27조제1항제9호) 항만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항만시설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 가능
- (감면제도 신설) 주관부서(항만운영과)와 사전 협의를 거쳐 무역항등의 항만시설사용및사용료에관한규정* 개정으로 감면제도 신설(~12월)
 - 감면대상 항만시설 사용료의 종류, 감면비율, 감면기간 등 정책적 지원 필요성에 대한 검토자료를 토대로 무역항 사용료 규정의 [별표 2] 항만 시설사용료별 감면을 및 감면대상에 추가 반영
 - * (무역항사용료규정 제9조제3항제2호) 항만 활성화, 항만간 균형발전 또는 화물 유통촉진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의 항만시설사용료 전부 또는 일부 면제 가능

V. 세부 추진과제 추진일정

추진전략, 추진과제 및 세부추진과제	추진일정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 선박관리 전문인력 양성				
가. 선박관리 전문인력 양성 교육훈련 강화				
① 선박관리전문가 양성 교육인원 단계별 확대				
나. 선원인력 양성 및 공급 시스템 구축				
① 청년해기인력 공급기반 강화				
② 국적 부원선원 양성				
③ 해기사 글로벌 역량 강화				
2. 선박관리산업 역량 강화				
가. 선박관리사업자 경영능력 제고				
①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제도 운영				
나.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기능 강화				
① 동반성장 상생협력 체계 구축				
②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사업 및 조직 확대				
3. 선박관리산업 신규 시장 개척				
가. 해외시장 신규 개척				
①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및 마케팅 강화				
4. 선박관리산업 제도적 지원				
가. 선박관리산업 지원 제도 확대				
① 선박관리업 등록제도 개선				
② 선박관리업 세제 지원 지속 유지 및 확대				
③ 관리선박의 무역항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VI. 세부 추진과제 예산현황 및 성과지표

(단위 : 백만원)

추진전략, 추진과제 및 세부추진과제	예산액	시행방법 (시행주체)	성과지표 (목표치)
1. 선박관리 전문인력 양성			
가. 선박관리 전문인력 양성 교육훈련 강화			
① 선박관리전문가 양성 교육인원 단계별 확대	200	민간경상보조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양성 교육인원 (150명)
나. 선원인력 양성 및 공급 시스템 구축			
① 청년해기인력 공급기반 강화	400	민간경상보조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청년 해기사 취업인원(150명)
② 국적 부원선원 양성	500	민간경상보조 (한국선원복지교육센터)	신규 부원선원 공급인원(150명)
③ 해기사 글로벌 역량 강화	200	민간경상보조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청년 해기사 해외 취업인원(40명)
2. 선박관리산업 역량 강화			
가. 선박관리사업자 경영능력 제고			
①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제도 운영	-	직접 수행	인증센터 지정(개소), 인증계획 수립
나.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기능 강화			
① 동반성장 상생협력 체계 구축	-	협회 주관	상생협약 체결
②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사업 및 조직 확대	-	협회 주관	확대방안 수립
3. 선박관리산업 신규 시장 개척			
가. 해외시장 신규 개척			
①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및 마케팅 강화	100 (부산사 협회)	협회 주관	국내포럼 개최
4. 선박관리산업 제도적 지원			
가. 선박관리산업 지원 제도 확대			
① 선박관리업 등록제도 개선	-	직접 수행	개선방안 마련
① 선박관리업 세제 지원 지속 유지 및 확대	-	직접 수행	세제지원 유지
② 관리선박의 무역항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	직접 수행	감면제도 신설